

좌/담/회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사정: 북중접경지역에서의 관찰

KDI 경제전략연구부 북방경제실은 2018년 7월 26일 북중접경지역 현지 전문가 세 분을 초청하여 '북중교역과 북한의 경제사정: 북중접경지역에서의 관찰'을 주제로 협의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2018년 상반기 연이은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중접경지역에서의 북중교역 및 전반적인 분위기, 북한의 경제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본문은 토론자의 동의를 얻어 토론 내용을 정리·제공한다. 다만, 본 협의회에 참석한 현지 전문가는 단동 및 연변 등 북중접경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에 신변 노출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일시 및 장소

2018년 7월 26일(목), 중국 연변

사회

이석(KDI)

중국 측 토론자

강두만(사업가), 백두선(사업가), 성길림(사업가)

한국 측 토론자

장형수(한양대학교)

이석: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2018년 상반기 남북정상회담 및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는 남북경협이 재개와 함께 국제적인 대북경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DI 북한경제리뷰』에서는 북중접경지역에서 북중교역을 수행하시거나 또는 이를 직접 관찰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최근의 북중교역 분위기와 북한의 경제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일단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다. 지난해 연말 및 올해 초와 비교해 볼 때 선생님들께서는 최근 북중교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하다.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먼저 백두선 선생님께 의견을 부탁드린다.

백두선: 연변 지역에는 이북 출신 조선족이 많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던 그 사이에 김정은이 중국을 세 번 방문했다. 중국은 객관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럴때 북한도 굉장히 힘들다. 물품이 거래되는 도로도 막힌다. 중국의 대북제재가 심하면 훈춘, 나진 지역의 교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중국의 북방은 남방에 비해 20년이 뒤쳐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개발이 많이 뒤쳐져 있다. 옛날부터 연변이 살길은 개혁개방하여 빨리 개발을 이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현지인들의 분위기는 접경지역의 특징을 살려 개방하여 교역하고, 경제발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현재 연변인구가 감소한 상태이고, 특히 젊은 인구는 더더욱 없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 광둥, 심천 등 주요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다시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이곳 접경지역에서의 거주, 체류, 비자 체류, 거주지 등록 등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옛날에는 북한사람들의 출입국 검사가 좀 느슨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엄격해졌다. 성에서 출입국 관리를 한다. 옛날에는 나진에 호시무역구 같은 것을 추진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북한의 장마당 정책이 북한을 잘 대변하고 있는 정책이다. 사람, 돈, 물건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접경지역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과 경제기관의 목표가 맞아야 하고, 특히 이런 것은 국가 대 국가 상호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본질이 달라졌다. 옛날에만 해도 친척 중에 북한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했다. 접경지역은 농업지대였던 것에 반해 북한에서는 일본산, 경공업 물품도 구경할 수 있어

북한이 잘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국이 개방하고 한중수교가 맺어지면서 일명 코리안 드림 같은 것이 생겨났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연고자를 통해 들어오는 외화가 재정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인구구조도 함께 변했다.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신의주-단동은 경공업품이 많이 교류되고, 나진-선봉은 펜과 같은 생필품이 많이 교류된다.

이석: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물품을 싣고 전달하는 도로,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중국의 대북제재가 심할 때는 도로도 막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하여 현재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길림: 작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단속이 심할 때 도로가 막혔다. 예를 들어 북한에 이미 선봉이 지급된 물품이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 훈춘-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다리(신두만강대교)를 통해 거래를 해왔는데, 대북제재가 심해지면서 세관 검열이 심해졌고 물품이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해산물 같은 것이 상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목별 거래 제한이 있었다. 또한 큰 업체하고의 거래는 안 된다 등의 제재가 있었다. 훈춘-나진에서 거래하는 물품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거의 중국 내수용이 많다. 지금은 대북제재 품목에 대해 어떤 것은 아예 거래가 어렵고, 어떤 것은 5kg 이내와 같이 물량으로 통제를 한다. 지금도 여전히 막고 있다. 대북교류가 완전히 풀어진 것은 아니다. 밀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어렵지만 몇몇 품목에 대한 밀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석: 작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고조되었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있었고, 요즘도 공식적인 것은 모두 막으나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밀수와 같은 것은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백두산: 북중접경지역 국경이 굉장히 긴데 이를 모두 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산 밀수품 거래는 역사가 길다. 밀수로 거래된 현금은 거의 모두 인민폐로 거래된다. 제재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정서상으로 북한이 잘되어야 연변이 잘된다는 인식이 있다. 이것이 과연 북한에 대한 연민인지는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연변과 북한이 상호적 관계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다. 연변 지역은 바다와 인접하지 않아 항구가 없기도 하고, 북한과의 거래가 육로로라도 활성화 되어야 연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관광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석: 그렇다면 다음으로 성길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현재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성길림: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제재가 심할 때는 다리 중간에서 물건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 중국에서 사업가들이 손실을 많이 봤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해산물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니나 오징어 같은 것은 조금씩 거래되고 있다고 들었다. 북한으로는 주로 생활용품 같은 것이 제재품목이 아니라 나가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는 제재를 한다. 중국 해관에 상품을 등록하고 정상무역을 하지만 북한도 돈이 있어야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는데, 북한으로 돈이 조달되지 않아 구매력이 떨어졌다. 북한 물건이 중국으로 많이 나와야 북한도 구매력이 생기는데, 생활용품 같은 경우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백두선: 현재 북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잘 수출된다고 한다. 지난해 가장 어려울 때는 바늘, 머리핀 같은 쇠붙이 하나도 일절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이 북한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은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 앞서 구매력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지금 북한산 물건도 조금씩 들어오는지, 들어온다면 어떤 물건이 주로 거래되는지 궁금하다.

성길림: 북한의 약재 같은 것이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작년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백두선: 북한과 중국과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세관들도 서로 적대감이 생겨 서로 감시를 심하게 하고 보복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면서 완충기에 접어든 것 같다. 제재가 심할 때는 호주머니까지 다 뒤틀지만 정세가 완화되면서 함께 완화되는 것이 통상구역의 특징인 것 같다.

중국과 북한 서로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밀수)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래상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빨리 팔고 싶은 것은 당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북한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성길림: 작년에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어려웠다. 세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세관 서류 작성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었다. 지금은 조금 완화된 상황이다.

이석: 다음으로 강두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강두만: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편으론 완화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앞서 백두선 선생님이 접경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옛날에는 중국이란 대륙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만나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면서 정치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서 현지 상황은 자연스레 분위기가 바뀌었다. 물론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만 위에서 정상들이 잘 지내니까 분위기가 나아진 것은 있다.

이석: 일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연변 지역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매우 철저해지고, 북한인들의 중국 방문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 역시 강화되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혹시 현재에는 북한사람들이 중국을 방문, 거주하는 것이 작년에 비해 또 달라졌는지 여부도 궁금하다.

백두선: 상호 친지 방문 같은 것은 크게 풀리지 않았다. 만약 풀려도 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북한에서 중국 친지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서류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연변에는 남북한 사람이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민감하다. 관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선에서 철문까지 모두 닫는 극도의 긴장상태는 풀렸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도 북한의 민생품목과 관련된 거래는 풀고 싶은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 어려운 것 같다.

이석: 다음으로 강두만 선생님께 체류 관련하여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두만: 체류 문제는 비자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옛날에는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확인을 안했는데, 요즘은 월급명세서, 세금은 내는지 등까지도 세세하게 확인한다. 또한 도와주는 회사도 벌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물론 사실이라고 확정지을 순 없지만 북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신규 노동자는 들어왔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 끝나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연장해서 있는 분위기이다.

성길림: 접경지역에 보면, 음식업에 종사하는 북한 종업원이 많았다. 북한 노동자는 기한이 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보통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제재 전에 연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백두산: 중국의 공식적인 체류허가증은 전문가증 일반 취업증 등 두 가지가 있다. 전문가증은 영사 전문가증 같은 것이다. 중국 공안에 전문가 영사 담당처가 있다. 북한의 교수, 학자 등 전문가증이 있는 상대가 왔을 때는 관련 서류(출장명령서, 학위 등)를 영사 담당처에 제출하고 중국이 외국인 전문가증을 발급해 준다. 이 전문가 증을 가지고 공안에 가서 장기 거주 신청을 한다. 북한사람이 어느 집에서 계약을 했는지 등을 공안에서 조사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며,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서류 승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관리하며, 며칠 내로 확답을 줘야 해서 발급 과정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 노동자증(또는 취업증, 취업비자)이 필요하다. 취업증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 중국에 노동법이 있다. 북한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중국 실업자가 많아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취업 문제는 정부 대 정부가 협상해서 지역정부가 결정한다. 중국 화룡시 같은 경우 화룡변경경제합작구를 추진하였다. 거기는 워낙 중국인 구인난이 심해 북한 인력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 북한도 제재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은 취업증, 즉 단순비자이다. 국가공무원과 같은 전문가증으로는 3~5년까지 있을 수 있다. 파견된 후 돌아가면 다시 북한이 파견하는 식이다. 취업비자로는 오래있을 수 없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거주증 외에 사용되는 것은 소위 멀티비자이다. 멀티비자는 접경지역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다. 나진 사람들은 여권과 통행증을 가지고 국경을 왔다 갔다 한다.

이석: 그렇다면 여전히 체류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백두산: 접경지역은 다 엄격하다. 무역사업가는 멀티통행증으로, 관광은 단체통행증으로 왔다 갔다 한다.

성길림: 북한 대표단처럼 몇 명 묶어서 오는 경우가 있다. 북한의 무슨 회사 관련 교류는 많이 늘어났다. 장기체류나 취업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 회사 차원에서 사절단 수준의 교류는 늘어났다.

강두만: 중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면서 교류가 늘어난 것 같다. 예를 들어 학술회의나 기업 교류 같은 행사에 북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나온다. 기업 유치하러도 나온다.

이석: 관광 관련 사항이 궁금하다. 중국 사람들의 북한 관광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백두산: 관광은 대북제재가 심할 때도 막지 않았다. 장려를 안했을 뿐이다.

강두만: 외국인들은 출입증을 가지고 나진하고 회령을 1~2일간 관광할 수 있고, 백두산, 칠보산을 둘러보면 3~4일 간 관광할 수 있다. 보통 여행사들이 해관에 등록된 차를 가지고 북한을 관광한다. 요약하면 이렇하다. 분위기가 나쁘면 관광도 알아서 안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알아서 다시 시작된다.

이석: 그렇다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경제상황을 지난해 말고 올해(특히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두만: 공식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 정서적인 변화는 많다.

이석: 그렇다면 모두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중국 정부가 제재를 풀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맞고,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유연해지고 비공식 무역이 많아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요점은 정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정서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변화하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북한의 경제사정과 관련된 질문이다. 앞서 북한의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언급되었다. 관련하여 중국에서 작년에 제재를 세계 했더니 처음으로 북한 시장에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사정에 대해 현지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다.

성길림: 작년에 대북제재가 석 달만 더 지속되면 북한경제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북한 내부에서 돌았다고 한다. 중국에 북한 물품이 들어가야 중국에서 돈을 받고 이 돈으로 북한주민들을 살리는데, 대북제재로 중국이 움직이지 않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제재가 고조되었는데 찾아온 기회가 평창올림픽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한 것이다. 요새 분위기는 좀 나아졌다고 한다.

백두산: 북한은 현재 시장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자생력은 있는데, 중국의 자원 및 재원조달이 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마당에 관여하면 북한은 어려워진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인프라도 구축되고 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주민이 고난의 행군처럼 굶어 죽지는 않는다. 통제가 심하더라도 북한은 접경지역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석: 현지 북한사람들이 북한 내부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하다.

백두산: 정확히는 모르겠다. 제재가 심할 때는 대부분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이럴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불만스러움을 표출했다. 지금은 외교적으로 풀린 상황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아무래도 접경지역이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쉬우니까 접경지역의 문제가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 다음으로 실제로 현지에 대북사업을 지켜보면서 향후 북중교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두만: 현재 북한에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중국 기업들이랑 많이

합작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제재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대북제재가 풀리면 하려고 한다. 지금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실제로 굉장하다고 한다.

성길림: 제 생각에 북한 정권 수립 70년째 되는 날인 9월 9일이 고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지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잘 풀리면 좋겠다. 하지만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9월 9일이라고 한 이유는 원산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기초시설을 북한이 많이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 시진핑 주석과 북한 사이에 오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9월 9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백두선: 시진핑 주석이 9월 9일에 북한에 방문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비핵화를 끝낸다고 하는데, 북한도 이 시간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와중에 상황이 변한다고 하여 대북제재가 완전히 완화되거나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평양에 건설붐이 일어나서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되었다. 나진에도 분양이 활성화되었다. 상당한 중국 물자가 현재 나진(나진·선봉)으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북한의 경제체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듯하다. 북한이 이미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선 먼저 당국의 정책이 변해야 하는데, 체제 유지를 원하는 북한이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중국도 과감히 투자하지 못한다. 북한에 투자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없어 보인다. 북한에 투자해서 크게 성공한 현지 사례도 없는 것 같다. 무역하는 사람들의 리스크가 너무 높다. 정책이 변할 때마다 영향을 받는다. 또한 북한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북한의 화폐개혁 때도 무역상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이석: 전반적으로 북중교역이나 상황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하나 획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신 것 같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북한을 접경지역으로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향후 북중교역의 확대, 남북중 3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주시길

부탁드린다.

강두만: 접경지역에는 이북 출신도 많고, 연고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다. 형제로 빚대어 남한, 북한, 현지 조선족 형제가 모여서 일을 하면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각자 특기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빠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중접경지역의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차이를 없애려면 많은 교류를 통해 차이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남북중의 기초 인프라가 형성되면 일일생활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 같다.

성길림: 남한과 북한은 흘러온 세월만큼 서로 차이가 난다. 사용하는 물품, 성질, 취향, 선호도도 남북한의 경제격차만큼 달라졌다. 따라서 만약 남북중 3각 경제협력이 된다면 접경지역 사업가들은 그동안 북한과 거래했던 물품들의 특징, 기술, 북한의 선호도 같은 걸 남한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석: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현지 사업가의 입장에서 향후 남북 간에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또는 이곳 현지와의 협력이 진행된다면 향후 한국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백두선: 학술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남북 학술교류가 많이 있었지만 5.24 조치 이후 학술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것 같다. 남북한의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학자는 개인 과제로서 접근하는데, 북한의 학자는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부를 대표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나 기관들이 단둥, 연변 등 북중접경지역을 실제로 방문하여 느껴봐야 한다. 가치관 및 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느끼며 북한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두산 개발, 두만강 하구 개발 등이 관련 예이다. 앞서 남북중 경제협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련 정보가 국가 간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교류협력을 위한 국가 간의 경제정보 교류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성길림: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향후 남북중 경제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한다.

강두만: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여러 협약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현지 사업가들이 각국의 정부들에 희망하는 것은 인적교류 및 북한을 방문하는 것만이라도 자유롭게 허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현지 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석: 간단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들인 것 같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번 강조하셨는데, 오늘 저희도 이곳 연변 현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번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다.